

# 2009

##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(4)

- I. 최근 국내경제 흐름
- II. 2009년 세계경제 전망
- III. 2009년 국내경제 전망
- IV. 2009년 업종별 경기 전망
- V. 종합판단 및 정책적 시사점

글 : SERI 황인성 수석연구원

### ● IV. 2009년 업종별 경기 전망

#### 전반적 부진 속 일부 산업 선전

- IT 산업은 세계경제 침체로 전반적인 시장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반도체와 통신기기가 수출호조를 보일 전망
- 반도체는 경쟁사의 설비투자 축소로 공급과잉이 일부 해소되면서 불황기에도 투자를 지속해온 국내업체의 수출이 증가할 전망
- 통신기기는 국내 제품의 품질 및 비용 경쟁력 개선을 배경으로 수출증가세를 이어갈 전망
- 가전은 평판TV시장의 성장률 둔화와 해외 현지 생산 증가로 수출증가율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고부가가치 제품 발굴 노력이 지속될 전망

- 디스플레이는 선진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제품가격이 하락세를 보일전망
- 주력산업은 국내외 시장침체로 자동차와 석유화학의 정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선박의 건조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
- 고가로 수주한 선박인도가 본격화되면서 선박의 건조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나 글로벌 조선경기 둔화로 신규 수주량은 감소할 전망
- 자동차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고유가 및 해외 현지생산 본격화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전망
- 석유화학은 경기순환 주기의 최저점에 도달한 데에다 중동산 저가제품의 본격적인 출시로 아시아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

- 서비스 산업은 경기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침체로 정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동의 해외건설이 호조를 보일 전망
- 유통은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인터넷 쇼핑물,

- 천원숍, 셀프 스토어 등이 인기를 끌 전망
- 건설은 국내 부동산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SOC 예산과 민자사업(BTL)의 증가로 국내 수주가 소폭 증가하지만, 해외건설은 유가안정과 경쟁심화로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

< 2009년 산업전망 종합 >

(전년대비,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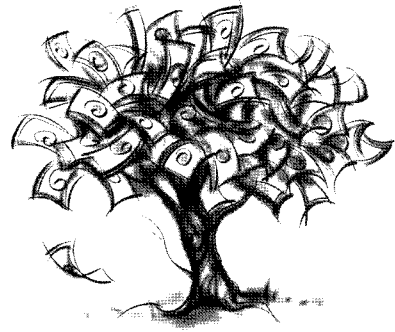
업종		성장률		주요 특징
		2008년	2009년	
IT 산업	정보통신기기	16.0	7.3(생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국내기업 이동통신 단말기의 품질 및 비용 경쟁력 개선</li> <li>· 스마트폰과 노트북 PC 수요가 세계시장 성장을 견인</li> </ul>
		16.4	13.1(수출)	
	반도체	2.1	9.5(생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2009년 메모리 시황 개선으로 수출성장세 회복</li> <li>· 노트북 PC에 新저장장치 SSD(Solid State Drive) 채용 증가</li> </ul>
		-2.8	10.4(수출)	
가전	7.3	4.8(생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평판TV시장의 성장률 둔화 속에 신흥시장의 비중 확대</li> <li>· 가전시장의 신규 수요창출을 위한 고부가가치 제품 발굴진행</li> </ul>	
	8.7	5.9(수출)		
디스플레이	18.9	4.1(생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로 진입하면서 성장세가 크게 둔화</li> <li>· 수요부진으로 제품가격도 안정세에서 하락세로 반전</li> </ul>	
	19.4	5.1(수출)		
주력산업	자동차	0.7	-0.6(생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경기침체와 고유가 지속으로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정체</li> <li>· 경차판매가 확대되는 가운데 친환경자동차 출시</li> </ul>
		-1.5	-1.9(수출)	
	조선	29.7	27.5(생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경기침체와 고유가 지속으로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정체</li> <li>· 경차판매가 확대되는 가운데 친환경자동차 출시</li> </ul>
-23.8	-20.0(수출)			
석유화학	6.3	4.5(생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경기순환 주기의 최저점 구간 진입 예상</li> <li>· 중동산 제품의 본격적인 출시로 아시아 시장의 경쟁심화</li> </ul>	
	11.8	7.5(수출)		
서비스산업	유통	3.2	3.1(매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성장을 주도했던 대형마트는 규제와 입지포화로 성장세 둔화</li> <li>· 소득양극화 심화에 따라 업태별 실적 양극화가 가속화될 전망</li> </ul>
	건설	-7.0	0.8(국내수주) 4.0(해외수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2009년 국내 수주는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불구하고 SOC예산과 민자사업(BTL)의 증가로 소폭 증가</li> <li>· 해외건설은 유가안정과 경쟁심화로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</li> </ul>

※ 주력산업은 물량기준

● V. 종합판단 및 정책적 시사점

경제 살리기에 주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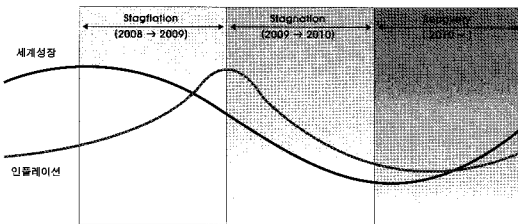
- 한국경제는 2009년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1년~1년 반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
  - 세계경제는 2010년에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
    - 미국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0년 이후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날 전망
  - 한국경제도 2009년 하반기 이후에나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
    - 고유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한국경제는 국제유가 안정이라는 대외 여건의 개선으로 회복시점이 세계경제보다 다소 빠를 것으로 예상



부작용을 발생시킬 가능성

-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시성을 확보해야 하며, 물가불안을 자극하고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운용
  - 재정지출을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 및 부문에 집중함으로써 물가불안을 최소화하며 경기를 활성화
  - 빈곤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책을 강구하고 자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

[ 향후 세계경제의 흐름 전망 ]



-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줄여 주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소득세율 인하 등 기존 감세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
  -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투자진작을 통해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 하는 기반이 될 수 있으므로 필요
  - 2009년에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도 추진함으로써 투자 및 경기 진작 효과 달성

- 2009년에는 경기하강 가속, 고용부진 심화 등 내수부진이 심화되는 반면, 물가불안은 진정될 것으로 보여 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필요
  - 물가안정대책 시행에 따른 경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구사할 필요
    - 자본의 유출입이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어 금리구조 변화 등의 금융정책은 금융불안을 확대시키는

[ 2008년 세계개편안 주요 내용 ]

소득세	소득세율 2%p 인하; 임인당 공제한도 확대: 100 → 150만원; 교육, 의료비 공제 확대
법인세	낮은 법인세 과표 상향 조정: 1억 → 2억원; 세율 인하: 13% → 10%, 25% → 20%
양도세	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: 6 → 9억원; 장기보유 공제 확대: 10년 이상 80%까지 1가구 1주택 감면 거주요건은 3년으로 강화
종합부동산세	과표 적용률 80% 동결; 상한 축소: 300 → 150%
상속증여세	세율 인하: 10 ~ 50% → 6 ~ 33%; 중소기업 상속공제 확대; 1가구 1주택 상속공제 신설

新산업 육성 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 
주력

로 전통산업에 대한 수요가 축소되는 반면, 에너  
지, 환경, 바이오 등의 산업이 부상할 전망

- 2009년은 지난 5년간의 고성장-저물가 경제가 종료되는 등 세계경제 흐름이 바뀌는 분기점으로 이러한 환경변화를 통해 향후 수년간을 선도할 산업구조가 변화할 가능성
  - 1990년대 중반 ~ 2000년대 초반에는 미국 등 선진국의 장기호황이 지속된 시기로 IT 산업이 세계경제 성장을 선도
  - 2000년대 초반 ~ 현재까지는 BRICs를 비롯한 개도국들의 고성장시기로 이들의 산업화 과정에서 일반기계, 조선, 철강 등 전통산업이 세계경제를 선도
  - 향후 세계경제는 신흥시장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
- 전기자동차, 재생에너지, 헬스 등 차세대 성장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R&D와 기술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
  -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교육 혁신을 유도
  - 기업의 R&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한도 확대 등 세제지원 강화
  -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여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신 재생 에너지 개발을 추진
    - 해외 자원기업 M&A, 생산 광구의 운영권 확보, 중대형 프로젝트 참여 확대 등 적극적 투자를 통해 해외자원 개발

